Samsung Financial Networks

Kodex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※준법감시인 승인필 202604-2ETFG6

금리

# Kodex KOFR금리액티브(합성)

(423160)

투자위험등급 1 2 3 4 5 **6**

매우낮은위험

※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**2026년 04월 30일 기준**

개인연금 / 퇴직연금

KOFR Index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며,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계획입니다.

## 투자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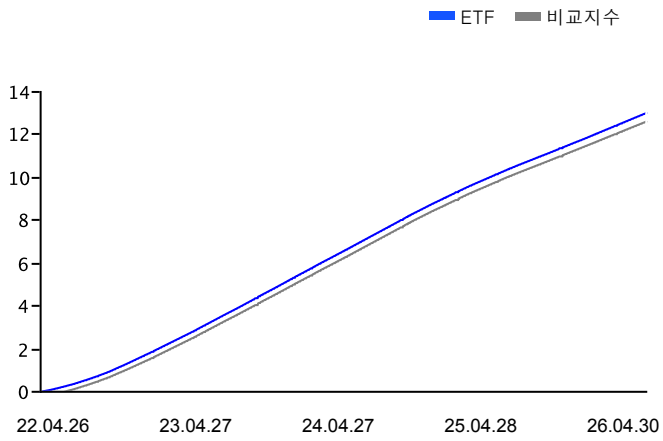
- 한국 대표 무위험지표금리(RFR)인 KOFR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액티브 ETF
- 매일 일할로 KOFR 금리 수익이 누적되어,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지정된 수익을 수취
- 상장 이후 1년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무손실 ETF

## 기본정보

| | |
|---|---|
| **ETF명** | Kodex KOFR금리액티브(합성) |
| **거래소코드** | 423160 |
| **비교지수** | KOFR Index |
| **ETF순자산총액** | 44,051.21억원 |
| **1주당 NAV** | 110,639.74원 |
| **총 보수** | 연 0.05% |
| | (지정판매 0.001%, 집합투자 0.039%, 신탁 0.005%, 일반사무 0.005%) |
| **상장일** | 2022.04.26 |
| **분배금** | 매월 지급 |
| **운용회사** | 삼성자산운용 |
| **사무수탁회사** | 신한펀드파트너스 |
| **수탁은행** | HSBC은행 |
| **환매방법** |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|
| **설정단위** | 1,000주 |

※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수익률 그래프(%)
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수익률 기준입니다.

## 분배금 지급현황

| 지급기준일 | 금액(원) | 지급기준일 | 금액(원) |
|---|---|---|---|
| 2026.04.30 | 240 | 2026.02.27 | 248 |
| 2026.03.31 | 221 | 2026.01.30 | 252 |

## 기간 수익률(%)

| | 1M | 3M | 6M | 1Y | 연초이후 | 상장이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TF | 0.22 | 0.65 | 1.29 | 2.62 | 0.87 | 13.02 |
| 비교지수 | 0.21 | 0.63 | 1.27 | 2.58 | 0.84 | 12.62 |
| 비교지수 대비 | 0.01 | 0.02 | 0.03 | 0.03 | 0.03 | 0.41 |

※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,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## KOFR란?

한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
**무위험 지표 금리** Risk Free Reference Rate

**신뢰도 높은 금융기관 거래**
높은 신용을 보유한 금융기관간 국채, 통안채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하기에 조작 가능성 無

**초단기 거래**
익일물 초단기 거래 기반으로 무위험 금리에 가까움

**실거래 기반**
담합 의혹이 있었던 CD금리의 신뢰도 하락을 계기로 실거래 기반의 KOFR 금리 산출 개발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(간이)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